

폭염 속 군민 건강 지킨다

진안군, 무더위 쉼터·그늘막·살수차 운영 등 폭염 총력 대응

진안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른 장마가 조기 종료되면서 예년보다 빠르게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군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문자메시지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관내 경로당과 진안우체국, 전북은행, 진안 농협 등 유관 기관 등 332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중이며, 주요 도로변에는 그늘막 20개소를 설치해 군민들이 한낮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8일부터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지역인 군청, 우체국, 등산교, 시장교 앞 4개소에서 무료 생수를 하루 100병씩 배부하고 있다. 이 생수 보급은 폭염경보 시에 맞춰 다음 달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진안읍을 제외한 10개 면 지역에서도 각 행정복지센터 앞에 냉수 아이스박스를 비치해 자체적으로 냉수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또한, 도로의 복사열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살수차를 활용해 진안군 로터리부터 보건소까지 하루 8회 이상 물을 뿌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살수 작업은 도로 표면 온도를 평균 6.4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진안군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층을 위한 보호 대책

도 강화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취약 독거노인 1,282명의 가정 내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수시로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를 활용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발효시에는 안부전화 및 방문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성과

올해에만 152건 신청 4000만원 규모 토지 후손에게 돌아가

장수군은 본인 명의의 토지뿐만 아니라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241건으로 약 1,187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2건의 신청을 받아 447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써 올해에만 약 4천만 원 규모의 토지가 후손에게 돌아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무료행정이다.

특히 불의의 사고 등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평상시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개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거나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상속인은 신분증과 함께 2008년 이전 조상이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K-Geo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상 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조회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강북기 민원과장은 “조상 땅이 후손도 모른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간단한 서류만으로 전국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은 8일 최해관 前 설천면 연세외과 원장에게 모범의사에게 주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무주군, 최해관 전 설천면 연세외과 원장에 공로패 수여

무주군은 8일 최해관 前 설천면 연세외과 원장에게 모범의사에게 주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최해관 원장은 1978년 무주 대우병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해 1998년까지 20년간 진료와 보건 교육,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 관리 등 무주 군민건강 증진에 힘써왔다.

이후 2001년부터 올해 7월 5일까지는 설천면 소재 연세외과에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해 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40여 년간 무주

군민을 위해 헌신하신 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군민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려주시신 이분들의 건강이 바로 무주발전의 동력”이라고 밝혔다.

최해관 원장은 “무주는 내 평생의 절반을 보낸 제2의 고향”이라며 “의사가 된 보람을 고스란히 무주 군민과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했고 건강한 삶을 드릴 수 있어 행복했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어린이 수영 특강반 어린이 회원 모집

장수군은 여름방학동안 수영을 배우고 싶은 관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누리전당 너울관 수영장에서 ‘어린이 수영 특강반’ 어린이 회원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장수군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한누리전당 수영장에서 오전 9시부터 현장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25명의 회원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여름방학 어린이 수영 특강반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무료로 총 6회 운영된다.

강습은 2명의 전문 수영강사진이 수영장 이용 예절부터 수상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기초 수영법 등 수영 이론과 실기수업을 진행해 참여 학생들의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 적응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 적응 프로그램’을 오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5회에 걸쳐 장수군 귀농 귀촌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군에 따르면 한국 적응 프로그램은 △기초 한국어 △한국 예절 및 범죄 예방 △한국 문화 이해와 장수군 지역 홍보 등으로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실용 중심의 교육이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이 근로자들의 언어 능력 향상은 물론 농정주와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서 지난 2월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근로자뿐 아니라 농가와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맞춤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탄력’

진안군, 정천면 원월평마을 공모 선정… 20억원 사업비 확보

진안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정천면 원월평마을이 최종 선정돼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전국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서면 평가 및 대면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주요 내용은 △주민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택 정비, △소득 창출 기반 마련 등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안군은 2015년 시범사업인 동향면 상·하양지마을을 시작으로 6개 마을(상양지·하양지·원구신·하노·상백·무거)이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는

4개 마을(무거·원반월·지사·원평지)에서 추진 중이다.

정천면 원월평마을은 농어촌청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14억원을 받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소멸위기의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원월평마을 장한수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취약한 마을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주민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거쳐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행정과 한 팀을 이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시설원에 국비 사업 예비 사업자 모집

무주군이 2026년 시설원에 분야 국비 사업 예비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 종사 경력자(신청 품목 1년 이상),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한 자 등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조성하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

화 사업’을 통해 지역 냉난방시설과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목재 펄릿 난방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서 시설 보급을 위한 ICT용·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센서·영상·제어 장비 등)을 지원하며 시설원에 현대화를 위해서는 양액재활용시설, 환풍기, 순환팬, 보광등 등을 지원



한다. 에너지 절감 시설로는 다점보온커튼, 자동 보온 덮개, 순환식 수막 재배시설, 열 화수형 환기장치, 폐기열 회수장치 등이 지원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